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

과장 권혜린, 사무관 정재상
(044-200-2068, 2533)

이낙연 총리, 내각이 경각심을 가지고 민생경제 챙길 것 주문 - 한미·북미 정상회담 내각차원 적극 지원, 후속조치 사전대비도 강조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15일(화) 오전,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제5차 총리·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.
 - 오늘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, 강경화 외교부장관,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및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.
 - * 사회부총리는 지방 행사 일정으로 불참
-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1개월간 주요 정책일정을 점검하고, 경제·사회·외교·통일 분야 주요 현안 및 동향에 대해 공유·논의했습니다.
 - 경제분야에서는 △혁신성장 성과 점검 및 확산 △재정전략회의 준비 △아프리카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(AfDB 연차총회, 5.21~24, 부산) 등을,
 - 외교·통일 분야에서는 △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△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으며, 근로시간 단축 현장대책, 의료현안 등 사회분야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이 있었습니다.
-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상황에서, 내각이 그간 정책 추진의 성과와 비판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돌아보고,
 - 전 부처가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경제를 포함한 각종 정책현안들을 빈틈없이 챙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.

- 이낙연 총리는 ①무엇보다 연이어 개최될 한미정상회담,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, 회담 이후 예상되는 필요 조치와 급격한 변화들에 대한 선제적 검토·대처도 주문했습니다.
- 아울러, ②노동시간 단축이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, 새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해소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과,
- ③금주 혁신성장 보고대회(5.17)를 계기로 그동안 중점 추진해 온 8대 핵심 선도사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, 앞으로도 이러한 혁신성장이 경제·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경제팀이 각별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- 제6차 총리·부총리 협의회는 총리 해외순방 일정(5.24~30)을 감안하여, 오는 6.5(화, 잠정) 개최 예정입니다.